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음 9월 18일) 제21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만연...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뿔난 학부모들 달래주나?

내년 신·증설 학급 기준 500에서 2배 늘리는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목표 조기 달성키로
부모협동형 등 신설... 시기는 1년 가장 앞당겨질 듯

연일 계속되는 비리사립유치원 문제로 전국 학부모들이 뿔났다. 정부와 여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고 곳곳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관련사진 3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021곳 가운데 국공립은 4801곳, 사립은 4220곳으로 수적으로는 국공립이 더 많다. 하지만 국공립은 대부분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 규모가 작다. 이에 원아 수 기준으로는 67만6000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이 50만4000명, 국공립원생이 17만2000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올해 전국 평균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유아교육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당초 2018~19년 각 500학급씩 2020~22년 각 530~540학급씩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500학급은 2019년 3월에 문을 열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9월 문을 여는 방식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임대형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운영비 50% 안팎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신 법인으

로 전환해야 하고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를 포함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등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청이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취원을 40% 달성 시기는 1년 가장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경기·경남 등 17개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고려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며 "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감사 결과 공표가 초래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국회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5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송하진 도지사 및 선수단이 개회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새 세상으로 어우러짐'... 장애인체전 개막

29일까지 전북도내서 열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새 세상으로 어우러짐'을 주제로 25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회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린 이날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수단, 관람객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치사(致辭)에서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완벽

하지 못한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기대 '우리'로 살아간다"며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여러 선수들 또한 절망 대신, 기습 떨리는 도전을 택한 사람들"이라며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을지 헤아려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주셔서 고맙다. 경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국내 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의 성화를 함께 봉송했고, 장애인 주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북의 자랑인 탄소융합 소재로 성화봉을 제작해 성화봉의 무게도 줄였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한 계의 벽을 무너뜨리는 감동체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9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33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시민행복 실현하는 도시재생 출발점 만들어가자"

김승수 전주시장, '도시재생 협치포럼' 공동대표에 취임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상임회장과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이번에는 '도시재생 협치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대구에서 정부, 지자체, NGO, 공기업, 현장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시재생 협치포럼의 제2차 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서 도시재생 협치포럼을 이끌어갈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 제시, 협치기반의 사업발굴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김 시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전주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우수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돼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는 올해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시가지지형)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마을(우리동네살리기)의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지난해 서화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난 2016년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등 3년 연속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팔복·승암 새마을을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도시재생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

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 특히, 도시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점진적 기능전환사업으로 전주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첫마중길 조성사업, 팔복예술공장 재생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이곳 선미촌에 아트팩토리과 아트레지던시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이 점진적으로 파고드는 인권·예술 마을로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전주의 첫인상인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



과 전라감영 테마거리 조성,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시민 휴식·체험·문화 교류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도시는 사람을 담은 그릇으로 도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도 달라진다"며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지역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해 진정한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송경윤 나눔과미래 이사장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김명배 전 서울 성북구청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공식 출범한 단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경윤 도시재생 협치포럼 상임대표 등 도시재생관련 중앙부처 관계자와 광역·기초지자체장,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현장활동가, 공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높이고

농협은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농촌도 국민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농협이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지부장 이승계 임실농협 조합장 이재근 오수관촌농협 조합장 김혁은 임실축협 조합장권한대행 권영준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설동섭

